

부모의 감사성향이 청소년의 감사성향에 미치는 영향: 성별을 중심으로

김 주 현¹⁾

고려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

임 정 하²⁾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족 구성원들의 감사성향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성별에 따라 부모의 감사성향이 청소년 자녀의 감사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여 청소년 353명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질문지법을 이용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대응표본 t 검정,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 집단의 감사성향 수준이 아버지 집단의 감사성향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 집단의 감사성향 수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부모의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청소년 자녀의 감사성향이 높았으며, 특히 동성부모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들의 감사성향에는 아버지의 감사성향이 어머니의 감사성향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여학생들의 감사성향에는 어머니의 감사성향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 자녀의 감사성향에 부모 모두의 감사성향이 영향을 미치며, 특히 동성부모가 자신이 얻은 긍정적인 결과에 있어 다른 대상의 기여를 인식하고 그에 감사함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청소년 자녀의 감사성향에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요어 : 감사성향, 청소년, 부모, 부모자녀관계, 성별

1) 고려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 아동학전공, 박사과정

2) 교신저자 :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E-mail: jhlim@korea.ac.kr)

I. 서론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타인 또는 세상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살아간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혜택을 인식하고 감사함을 느끼며 표현한다. 이처럼 인간이 생활 전반에서 자주 느끼고 표현하는 감사에 대한 연구가 최근 긍정심리학의 성장과 함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연구자들에 따르면 감사(gratitude)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호의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생겨나는 기쁜 감정 또는 특정한 상황, 사람, 행동, 물건 등의 가치를 인식한 후 느끼는 긍정적인 정서이다(Adler & Fagley, 2005; Emmons & Shelton, 2002; Lazarus & Lazarus, 1994; McCullough, Kilpatrick, Emmons, & Larson, 2001). 이러한 감사는 은혜에 보답하려는 동기와 행동을 유발한다. 또한 다른 긍정적 정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사고와 행동 패턴을 확장시키고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redrickson, 2004). 즉, 인간은 사회적 상황에서 감사를 느끼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타인과의 관계 및 교류를 강화시켜 개인이 잘 기능하도록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많은 학자들은 감사를 사람들이 경험하는 정서로 정의하였는데, 일부의 학자들은 감사를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정서적 특질(trait)로 보았다. 이러한 특질로서의 감사는 감사성향(dispositional gratitude)을 의미한다. Watkins, Woodward, Stone과 Kolts(2003)는 감사성향을 호의에 대한 고마움을 경험하는 경향성으로 개념화하였다. 또한 McCullough, Emmons와

Tsang(2002)은 감사성향을 자신이 얻은 긍정적인 경험과 결과들에서 다른 사람이 베푼 선의를 인식하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반응하는 일반화된 경향성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감사성향을 살펴볼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와 의미를 인식하고 감사의 원인을 인식하는 것과 관련한 인지적 측면, 일상에서 고마움을 느끼는 정서적 측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행동적인 측면(임경희, 2010b)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사를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개인의 특질로 보고, 감사성향을 자신의 긍정적인 경험 속에서 다른 대상의 호의나 도움을 인식하고 그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며 고마움을 표현하는 경향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행복감(McCullough et al., 2002), 안녕감(임경희, 2010a), 내적 통제성(Watkins et al., 2003), 긍정 정서, 영성(Adler & Fagley, 2005), 대인관계 유능성(손솔, 서경현, 2014), 학교적응(임경희, 2010c), 용서(Toussaint & Friedman, 2009)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분노, 공격성, 우울, 불안(McCullough et al., 2002), 회피, 복수심(Toussaint & Friedman, 2009), 스트레스 지각(심은진, 조현주, 2013), 지나친 자기애(유주연, 박경, 2010)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서 감사성향이 개인의 긍정적인 발달에 유익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감사성향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요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즉, 감사성향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와 적응 등에 미치는 영향

력을 살펴본 연구는 많지만, 감사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기는 발달상 과도기적 단계로, 이 시기에는 발달과업을 이루는 과정에서 다양한 부적응 문제가 표출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업에 전념하도록 강요받으며, 과중한 학업부담으로부터 심한 불안과 압박감에 시달린다. 또한 정서적으로 예민한 청소년기는 교우관계가 가장 활발한 시기인 동시에 교우관계의 갈등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하다(권석만, 2013). 이러한 문제들은 청소년들의 안녕 상태를 위협하고 이후 발달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으며, 나아가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감사성향은 다른 긍정 정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서 해결 가능한 다양한 대안을 찾도록 사고를 확장시키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증가시켜 적응적인 행동을 하도록 돕는 것으로 알려졌다(Fredrickson, 2004).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기 감사성향은 청소년 스스로 부적응 문제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만 몰두하여 자기중심적 사고나 태도를 보이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과 적응을 돕는 감사성향은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와 달리 개인보다는 대인간의 관계성을 중시하는 관계주의 문화인 한국 문화에서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감사성향이 여러 측면에서 유익하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청소년의 감사성향을 예측하는 요인을 살펴볼 필

요성이 있다.

연구자들은 감사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 관련 요인에 관심을 가졌다. Klein(2002), McAdams와 Bauer(2004)는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로부터 자녀의 감사성향이 발달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부모와 같은 가까운 성인들이 감사를 예절로서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키면 감사성향이 발달할 수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Buck, 2004; Froh & Bono, 2008; Froh, Miller, & Snyder, 2007; McCullough et al., 2001; Shelton, 2004). 국내 청소년의 감사성향을 살펴본 연구들(김예진, 2012; 임정하, 김주현, 김현경, Xiong, 2015)에서는 청소년들이 부모의 애정, 관심 등과 같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지각할수록 감사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준비하고 사회적 관계망이 넓어지는 청소년기에도 부모가 여전히 성격발달 및 인성형성에 의미 있는 부분을 차지하며, 청소년 자녀의 감사성향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외적 강화 없이도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어떠한 행동을 학습할 수 있는데, 이처럼 관찰을 통해서 하는 학습을 모델링 또는 모방이라 한다. 부모는 자녀의 중요한 행동 모델이며,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부모와 유사한 성격, 신념, 태도 등을 갖는다. 즉,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가까이서 쉽게 관찰하고 모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좋은 모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이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기존의 연구자들(Greif & Gleason, 1980; Hoy, Suldo, & Mendez, 2013; Li, 2015; Seplowitz,

2011)에 따르면 자녀의 감사성향은 부모가 감사함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한 모델링을 통해 발달할 수 있다. Greif와 Gleason의 연구(1980)에서 아동이 선물을 받을 때 옆에서 어머니가 함께 감사를 표현한 경우 아동의 감사 표현도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때 대부분의 아동들은 어머니의 언어를 그대로 따라하여 감사함을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자녀는 타인의 호의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는 부모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그러한 행동을 습득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자녀의 행동모델로 부모 모두의 역할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부모 스스로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고 본보기가 되고자 노력하였다. 오늘날 지식위주의 교육이 강조되면서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이 다소 약화되고,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으로 부모 역할에도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비록 현대 가정과 전통 가정의 모습에는 차이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는 자녀가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중요 인물이며, 부모 모두의 모델적 행동은 생후 초기부터 자녀의 발달에 주요한 요인이다. 특히 선행연구(김경연, 하영희, 1998)에서는 청소년의 도덕적 행동에는 훈육보다 부모의 행동에 대한 관찰학습이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감사성향이 도덕적 특성을 갖는다는 학자들(Froh & Bono, 2008; McCulloch et al., 2001)의 주장을 고려해 보았을 때, 관찰학습의 효과로 인해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감사성향 간에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즉, 부모가 자신들의 삶 속에서 다른 대상의 기여를 인식하고, 그에 고마움을

느끼고 보은함으로써 본보기가 되는 것은 청소년 자녀의 감사성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감사성향이 청소년 자녀의 감사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가족 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양상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Collins & Russell, 1991; Maccoby, 1990; Russell & Saebel, 1997). 즉, 부-자녀 관계와 모-자녀 관계는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고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통 가정에서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남아의 경우는 아버지와, 여아의 경우는 어머니와 관계가 긴밀해진다고 하면서, 자녀양육에 있어 동성부모의 역할을 강조하였다(백혜리, 1997; 정진, 백혜리, 2001). 선행연구들에서도 남학생들의 긍정적 발달에는 아버지의 태도가(박정희, 2002; 임정하, 2006), 여학생들에게는 어머니의 태도가 이성부모의 태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박정희, 2002).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이 감사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임정하와 동료들(201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감사성향에 부모 모두의 양육행동이 기여하는데, 특히 남학생들의 감사성향에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여학생들의 감사성향에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청소년기 자녀의 감사성향에 미치는 영향력도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관찰학습의 경우에도 아동 및 청소년은 이성 성인보다 동성 성인의 행동을 더 많이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Deater-Deckard & Dodge, 1997). 이를 고려해 보았을 때, 부모

와 아들, 부모와 딸의 감사성향 간 관련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감사성향이 청소년의 감사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자녀의 성별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덧붙여 기존의 연구들에서 연령(김애경, 2015; 한지영, 김정민, 김재정, 2012; Froh & Bono, 2008; Gleason & Weintraub, 1976; Graham, 1988)과 종교 유무(김애경, 2015; 김정섭, 2014; 박신영, 이서정, 현명호, 2012; 한지영 등, 2012; Toussaint & Friedman, 2009)와 같은 인구학적 특성들이 감사성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러한 배경변인들이 감사성향과 관련이 없다는 연구들(권선중, 김교현, 이홍석, 2006; 김미선, 박성희, 김진영, 2013; 안선영 2010)도 소수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학교급과 종교 유무가 청소년의 감사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후, 부모의 감사성향이 청소년의 감사성향을 설명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족 구성원들의 감사성향 수준 차이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김정섭, 2014; 서미애, 2012; 이강미, 2015; 임정하 등, 2015; Becker & Smenner, 1986; Froh, Yurkewicz, & Kashdan, 2009; Gordon, Musher-Eizenman, Holub, & Dalrymple, 2004; Kashdan, Mishra, Breen, & Froh, 2009)에서 감사성향의 수준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감사성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는 한 세대 또는 동일한 발달 시기에 속한 대상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만 살

펴보았을 뿐, 가족구성원들의 감사성향 간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없다. 현행 「민법」 제779조에서는 가족의 범위에 본인을 중심으로 현재 배우자와 직계혈족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6).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가족은 혼인관계로 이루어진 부부와 혈연관계인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대부분의 가정들은 두 세대 이상으로 구성되며, 구성원들의 성별 또한 동일하지 않다. 또한 구성원들이 부분적으로 유전적 요소를 공유하고,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정서적으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점에서 가족 집단은 다른 집단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가족구성원들의 감사성향을 살펴보는 것은 동일한 세대 내 독립적인 개인들의 감사성향을 살펴보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 아버지-아들, 아버지-딸, 어머니-아들, 어머니-딸의 감사성향 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성별에 따른 감사성향 수준 차이가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가족의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나타나는지, 감사성향 수준이 유사한 구성원들이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족 구성원들의 감사성향 수준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부모의 감사성향과 청소년의 감사성향의 관련성을 탐색한 후, 학교급과 종교 유무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감사성향이 자녀의 감사성향을 의미 있게 설명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감사성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족 구성원들의 감사성향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감사성향이 자녀의 감사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청소년용, 아버지용, 어머니용으로 구성된 설문지 세트를 청소년 505명과 그들의 부모에게 배부하였으며, 회수한 설문지는 청소년용 505부(100%), 아버지용 415부(82%), 어머니용 428부(85%)였다. 이들 중 먼저 3인의 짝이 맞지 않는 세트 자료(107부)를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 자녀 감사성향에 대한 관찰학습과 유전적 영향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부모와 자녀가 동거 중이지 않거나(15부), 생물학적 부모가 아닌 세트 자료(5부)를 제외하였다. 또한 부실기재되거나 대리기재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11부)와 회수율이 50%가 되지 않는 1개 학급의 자료(14부)를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실제 분석에 포함된 것은 청소년 자녀 및 부모 자료가 모두 있는 353세트였다.

연구대상 중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남학생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 = 353 가족)

변인		명 (%)
청소년 성별	남자	115(32.6)
	여자	238(67.4)
청소년 학교급	중학교	214(60.6)
	고등학교	139(39.4)
청소년 종교	유	171(48.4)
	무	180(51.0)
	무응답	2(0.6)
부모 종교	아버지	
	어머니	
	유	171(48.4)
	무	182(51.6)
	무응답	
	0(0.0)	
	1(0.3)	

15.7세, 여학생 15.9세였으며, 부모의 평균 연령은 아버지 48.4세, 어머니 45.5세였다. 부모의 최종학력은 모두 대학교 졸업(부 58.6%, 모 55.2%)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관리직(26.1%), 전문직(22.7%)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는 전업주부가 49.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부모의 감사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임경희(2010b)가 GQ-6(The Gratitude Questionnaire: McCollough et al., 2002), GRAT(The Gratitude, Resentment, Appreciation Test: Watkins, Grimm, & Hailu, 1998), Appreciation Scale(Adler & Fagley, 2005)에서 추

출한 문항들과 개방형 설문에서 나타난 내용들을 반영하여 대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한 감사성향 척도를 사용하였다. 단, 청소년의 문항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감사성향은 임경희(2010c)가 초등학생의 이해 수준에 맞도록 표현을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감사 대상에 대한 인식 및 인정(15문항)과 감사 정서 체험 및 반응 경향성(15문항)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에게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참여하고 싶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사성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임경희(2010b)는 척도 개발 시 요인타당도 및 공인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문항 전체 Cronbach's α 값은 .91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문항 전체 Cronbach's α 값은 청소년 .92, 아버지 .92, 어머니 .93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연구과정 및 설문지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5년 7월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70명과 그들의 부모 70쌍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 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한 후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505명과 그들의 부모 505쌍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연구자는 설문실시 전에 교사에게 연구목적과 취지, 설문지 실시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연구대상 학생들이 개인정보 활용 및 비밀보장 관련 내용 등에 대해 인지하고 부모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조사는 학생과 부모들의 동의를 얻은 후, 2015년 8, 9월에 실시하였다. 청소년용 질문지 작성은 교사의 지도하에 교실에서 이루어졌고, 5~1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청소년용 질문지는 작성 완료 후 모두 회수되었다. 아버지용, 어머니용 질문지 총 2부로 이루어진 설문지 세트는 학생을 통해 부모에게 전달하였으며, 1~2주 뒤에 회수하였다.

4. 자료분석

구체적인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둘째, 아버지, 어머니, 남학생, 여학생의 감사성향 평균 수준과 표준편차를 구한 후, 부부간, 부자간, 부녀간, 모자간, 모녀간 감사성향의 차이가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 때 다중검정에 의한 1종 오류 증가를 막기 위해 Bonferroni 방법을 사용하여 유의수준을 교정하였다. 셋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부모와 자녀의 감사성향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을 구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끝으로, 배경변인인 학교급, 종교 유무가 감사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부모의 감사성향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감사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회귀모형을 산출하기 전에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충족시키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선형적 관계, 공선성진단 결과, 잔차의 독립성 등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자료분석에는 IBM SPSS ver. 22.0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청소년기 가족구성원들의 감사성향 차이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족 구성원들의 감사성향 수준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부모의 감사성향 수준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 집단보다 어머니 집단의 감사성향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아버지 $M = 3.70$, $SD = .42$; 어머니 $M = 3.83$, $SD = .42$),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t = -5.02$, $p < .001$). 다음으로, 남학생 가족 구성원들의 감사성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감사성향($M = 3.87$, $SD = .39$)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아버지($M = 3.75$, $SD = .37$), 아들($M = 3.74$, $SD = .44$)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아들의 감사성향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아들 집단은 어머니 집단과 유의한 차이($t = 2.61$, $p < .017$)를 보였지만, 아버지 집단과는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여학생 가족 구성원들의 감사성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감사성향($M = 3.81$, $SD = .43$)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딸($M = 3.78$, $SD = .46$), 아버지($M = 3.68$, $SD = .44$)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딸의 감사성향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딸 집단은 아버지 집단과 유의한 차이($t = -2.70$, $p < .01$)를 보였지만, 어머니 집단과는 차이가 없었다. 정리하면, 남학생 가족에서는 아버지와 아들보다 어머니, 여학생 가족에서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딸의 감사성향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자녀의 감사성향 수준은 동성부모의 감사성향 수준과는 차이가 없는 반면, 이성부모의 감사성향 수준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감사성향이 자녀의 감사성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감사성향이 자녀의 감사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전에 이들 변인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남학생들의 감사성향은 아버지의 감사성향($r = .20$, $p < .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어머니의 감사성향($r = .17$, $p < .10$)과도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어머니와 아들의 감사성향 간 관련 정도는 다소 약하게 나타났다. 여학생들의 감사성향은 어머니의 감사성향($r = .25$, $p < .001$)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아버지의 감사성향($r = .21$, $p <$

1) 유의수준은 다중검정에 의한 1종 오류의 증가를 막기 위해 Bonferroni 방법에 의한 교정을 사용하여 $p < .017(.05/3)$ 로 하였다.

표 2. 청소년기 가족구성원들의 감사성향 평균 차이

대상		감사성향		<i>t</i>	<i>p</i> -value	Cohens' <i>d</i>
가족	구성원	<i>M</i>	<i>SD</i>			
전체 (<i>N</i> = 353)	아버지	3.70	.42	-5.02	.000	.27
	어머니	3.83	.42			
남학생 (<i>n</i> = 115)	아버지	3.75	.37	.15	.884	.01
	아들	3.74	.44			
	어머니	3.87	.39	2.61	.010	.24
	아들	3.74	.44			
여학생 (<i>n</i> = 238)	아버지	3.68	.44	-2.70	.007	.18
	딸	3.78	.46			
	어머니	3.81	.43	.94	.351	.06
	딸	3.78	.46			

표 3. 청소년기 가족구성원들의 감사성향 간 상관관계

	아버지	어머니	청소년
아버지	-	.18*	.20*
어머니	.38***	-	.17*
청소년	.21**	.25***	-

주. 남자 청소년(*n* = 115)의 상관계수는 대각선 위쪽, 여자 청소년(*n* = 238)의 상관계수는 대각선 아래쪽에 제시하였음.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01)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청소년 자녀의 감사성향은 부모가 긍정적인 결과에서 다른 대상의 호의를 인식하고 그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수록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감

사성향이 자녀의 감사성향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의 학교급과 종교 유무, 부모의 감사성향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청소년의 감사성향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으로 나누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청소년의 인구학적 배경변인인 학교급과 종교 유무를 독립변인으로 가변수화하여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는 부모의 감사성향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형을 살펴보면, 학교급과 종교 유무만 투입된 1단계 모형에서 두 변인은 감사성향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로 부모의 감사성향을 투입한 결과, 남학생의 감사성향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은 아버지의 감사성향($\beta = .19, p < .05$)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 어머니의 감사성향($\beta = .17, p < .10$)도 남학생의 감

표 4. 부모의 감사성향이 청소년기 자녀의 감사성향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남학생 (N = 115)				여학생 (N = 238)			
	1단계 모형		2단계 모형		1단계 모형		2단계 모형	
	B	β	B	β	B	β	B	β
학교급	-.10	-.11	-.08	-.09	-.09	-.10	-.06	-.06
종교 유무	-.06	-.07	-.12	-.13	.14	.15 [*]	.10	.11
아버지 감사성향			.22	.19 [*]			.13	.12 [*]
어머니 감사성향			.19	.17 [*]			.20	.18 ^{**}
F	1.03		2.64 [*]		4.33 [*]		6.19 ^{***}	
R ²	.02		.09		.04		.10	
ΔR^2			.07 [*]				.06 ^{**}	

주. 학교급은 중학생이 0, 고등학생이 1로, 종교 유무는 유 1, 무 0으로 코딩되었음.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사성향을 설명하는데 유의미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모형은 1단계 모형보다 설명력이 7% 증가하여 전체 남학생 감사성향 변량의 약 9%를 설명하였다($F = 2.64$, $p < .05$).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형을 살펴보면, 학교급과 종교 유무만 투입된 1단계 모형에서 종교 유무($\beta = .15$, $p < .05$)가 감사성향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4%였다($F = 4.33$, $p < .05$). 2단계로 부모의 감사성향을 투입한 결과, 종교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고, 어머니의 감사성향($\beta = .18$, $p < .01$)이 여학생의 감사성향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아버지의 감사성향($\beta = .12$, $p < .10$)도 여학생의 감사성향을 설명하는데 유의미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모형은 1단계 모형보다

설명력이 6% 증가하여 전체 여학생 감사성향 변량의 약 10%를 설명하였다($F = 6.19$, $p < .001$).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형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형을 비교해 보면, 부모의 감사성향은 각 집단별로 산출한 회귀모형에서 모두 청소년기 자녀의 감사성향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이성부모보다 동성부모의 감사성향이 청소년기 자녀의 감사성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감사성향은 부모가 긍정적인 결과에서 다른 대상의 호의를 인식하고 그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수록 높은 경향이 있으며, 특히 동성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가족 구성원들의 감사성향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부모의 감사성향이 청소년 자녀의 감사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가족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감사성향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감사성향 수준이 남학생 집단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아들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 집단에서는 어머니, 딸, 아버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남학생 가족의 경우 여성인 어머니의 감사성향 수준이 남성인 아버지와 아들보다, 여학생 가족의 경우 여성인 어머니와 딸의 감사성향 수준이 남성인 아버지보다 평균적으로 높았다. 가족구성원들의 감사성향 수준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아들보다, 딸이 아버지보다 감사성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의 감사성향 수준이 남성들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김정섭, 2014; 서미애, 2012; 이강미, 2015; 임정하 등, 2015; Froh et al., 2009; Gordon et al., 2004; Kashdan et al., 2009)과 같은 맥락에 있다. 두뇌과학이 발달하고 여성과 남성의 뇌 기능을 비교하는 연구들이 증가하면서, 연구결과들은 남녀의 뇌가 감정을 인식하고 처리할 때 다르게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감정적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Whittle, Yücel, Yap, & Allen, 2011). 즉,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정서

를 더 강하게 경험하고 표현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고, 대인관계에 대해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다(Maccoby, 1990; McAdams & Constantian, 1983; Reis, 1986; Winstead, 1986). 즉,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관계지향적인 특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남녀의 특성 차이들을 고려해보았을 때, 타인, 신, 자연 등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기여를 인식하고 고마움을 느끼는 정서적 특질인 감사성향의 수준이 아버지보다 어머니, 아들보다 어머니, 아버지보다 딸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사성향 수준이 부녀간, 모자간에는 차이가 있는 반면, 부자간, 모녀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기 자녀의 감사성향이 이성부모의 감사성향과는 차이가 있는 반면, 동성부모의 감사성향과는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성역할 습득과 관련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정신분석이론에 따르면, 자녀는 동성부모와의 성 동일시를 통해 자신의 성에 적절한 역할을 습득한다. 또한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자녀가 동성부모에 대한 관찰학습을 통해 자신의 성에 적절한 행동을 습득한다고 본다. 즉, 자녀는 동성부모를 통해서 자신의 성에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가치관, 신념, 행동 등을 습득하기 때문에 자녀의 특성은 이성부모보다는 동성부모와 유사할 수 있다. Brody(1997)에 따르면 남성들은 힘이나 지위와 관련된 정서들을 많이 표현한다. 감사가 부분적으로 부채감, 의존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Solomon,

1995) 남성들은 감사함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자신의 남성성과 사회적 지위를 약화시킨다고 생각하기도 한다(Levant & Kopecky, 1995). 따라서 남성들은 부정적인 정서 또는 사회적 결과 등을 피하기 위해 감사함을 많이 느끼거나 표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Froh et al., 2009). 반면 관계지향적인 특성을 갖는 여성들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유리한 감사를 남성들에 비해 자주 표현하며, 결과적으로 감사를 표현한 후 더 많은 이득을 얻는다(Kashdan et al., 2009). 즉, 감사함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남성보다는 여성의 특징으로서 적합하다고 여기는 사회적인 신념을 부모를 통해 자녀들이 직·간접적으로 습득하였을 수 있으며, 그 결과 감사성향의 수준이 동성부모자녀는 유사한 반면 이성부모자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청소년의 학교급과 종교 유무가 감사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한 후, 부모의 감사성향이 자녀의 감사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모 모두의 감사성향이 자녀의 감사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다른 대상의 기여를 인식하며, 고마움을 느끼고 표현하고자 할수록 청소년 자녀의 감사성향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갈망하고 부모와의 갈등이 빈번한 시기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또래, 미디어 등과 같은 사회의 영향력이 부모의 영향력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모두의 감사성향이 청소년의 감사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

는 주양육자이며 자녀의 기본적인 사회화를 돕는 최초의 교사인 부모의 감사성향이 청소년 자녀의 감사성향 발달에 여전히 중요하며 기본적으로 요구됨을 시사한다. 기존의 연구자들(Hoy et al., 2013; Li, 2015; Sepowitz, 2011)은 감사성향 발달에 있어 부모가 감사함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한 모델링 효과를 강조하였다.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부모가 자신들의 삶 속에서 다른 대상의 기여를 인식하고 그에 고마움을 느끼고 보은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한 자녀는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관찰하고 모방하며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해보았을 때, 부모가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와 의미를 인식하고 그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며 표현하는 모습이 본보기가 되어 자녀의 감사성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에 거주하는 초기 청소년들과 부모를 대상으로 그들의 감사성향 간 관계를 살펴본 Hoy와 동료들의 연구(2013)에서는 아버지와 자녀의 감사성향 간에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남성들이 정서 표현을 많이 억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즉,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정서를 많이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는 아버지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감사성향은 자녀의 감사성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본 것이다. 우리나라 아버지들의 정서 표현 수준이 서구문화권 아버지들의 정서 표현 수준보다 높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버지와 자녀의 감사성향 간 관련성에 대한 국외 연구결과와 본 연구결과의 차이는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 특성과 관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양권의 청소년들은 동양권의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빨리 부모와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구의 개별적, 독립적 부모자녀관계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이 크며, 부모자녀관계가 더욱 친밀하고 결속력이 강하다(현정환, 2007).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평균 연령이 약 16세였던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여전히 높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Hoy와 동료들의 연구(2013)와 달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감사성향 모두 청소년 자녀의 감사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감사성향에 대한 부모 감사성향의 설명력이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들의 감사성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버지의 감사성향으로 나타났다으며, 여학생들의 감사성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머니의 감사성향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들에게는 아버지, 여학생들에게는 어머니의 감사성향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의 발달에 동성부모의 영향이 크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박정희, 2002; 임정하 등, 2015; Boyum & Parke, 1995)을 지지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감사성향의 발달은 부모가 감사함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을 자녀가 관찰하고 습득하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Greif & Gleason, 1980; Hoy et al., 2013; Li, 2015; Sepowitz,

2011). 또한 청소년기에는 이성부모보다 동성부모와의 유대가 강해지고(Papalia, Olds, & Feldman, 2001), 이성 성인보다 동성 성인의 행동을 더 많이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Deater-Deckard & Dodge, 1997). 이를 고려해보았을 때, 청소년기 자녀는 고마움을 느끼고 반응하는 동성부모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으며, 그 결과 이성부모보다 역할모델인 동성부모의 감사성향이 청소년기 자녀의 감사성향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청소년의 감사성향 발달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감사성향이 모두 기여하며, 특히 동성부모의 영향력이 이성부모의 영향력보다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역할모델로서 동성부모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감사 일기 쓰기, 감사 편지 쓰기 등 주로 스스로 하는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현재 감사성향 함양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부모의 역할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며, 이때 청소년의 성별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한편 부모의 감사성향이 청소년 자녀의 감사성향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크기가 작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감사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 다른 영향 요인을 살펴 볼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 감사성향 증진을 위한 보다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추후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의 재학생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표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에서 표집이 이루어지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표본에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에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의 결과를 비교하는 데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감사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의 감사성향을 살펴보았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기질, 성격특성, 영성 수준과 같은 내적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감사성향이 청소년 자녀의 감사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감사성향이 부모의 감사성향을 통해 촉진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관계주의 문화이면서 예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 청소년의 감사성향 발달에 대한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6). 민법 제 779조(가족의 범위). [http://www.law.go.kr/법령/민법/\(20160204,13125,20150203\)/제779조에서](http://www.law.go.kr/법령/민법/(20160204,13125,20150203)/제779조에서) 2016년 9월 25일 인출.
- 권석만 (2013). 현대 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 권선중, 김교현, 이홍석 (2006). 한국판 감사성향 척도(K-GQ-6)의 신뢰도 및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1), 177-190.
- 김경연, 하영희 (1998). 사회화 요인들이 청소년의 도덕적 행동(친사회적 및 규칙위반 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8(1), 69-93.
- 김미선, 박성희, 김진영 (2013). 청소년의 성격강점과 행복추구성향 간의 관계: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5(1), 53-71.
- 김애경 (2015). 예비 유아교사의 성격유형과 감사성향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한국보육학회지, 15(1), 71-91.
- 김예진 (2012). 중학생의 부모-자녀관계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감사성향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섭 (2014). 한국 고등학생의 종교와 성별에 따른 감사성향의 차이. 동북아 문화연구, 38(1), 197-208.
- 박신영, 이서정, 현명호 (2012). 내재적 종교성향, 종교적 대처 및 감사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7(2), 449-460.
- 박정희 (2002). 부모의 가정교육방향 및 양육행동이 자녀의 심리사회성숙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혜리 (1997). 조선시대 성리학, 실학, 동학의 아동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미애 (2012). 고등학생의 감사성향과 역경지각의 관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솔, 서경현 (2014). 대학생의 감사 성향과 심리적 웰빙 간의 관계: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19(2), 619-639.
- 심은진, 조현주 (2013).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에서 감사 성향의 효과.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논문집, 2013(1), 293.
- 안선영 (2010). 성격 강점에 대한 청소년의 자기인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주연, 박 경 (2010). 자기애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감사성향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7(4), 1-23.
- 이강미 (2015). 중학생의 감사성향과 정서지능 및 성취동기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경희 (2010a). 감사성향과 자아탄력성이 초등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 비교. 교육논총, 47(2), 101-118.
- 임경희 (2010b). 감사성향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1(1), 1-17.
- 임경희 (2010c). 아동의 스트레스 경험과 감사성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육연구, 23(3), 215-238.
- 임정하 (2006). 한국적 부모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발달특성과의 관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책임감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3(1), 135-151.
- 임정하, 김주현, 김현경, Xiong Yanni (2015). 부모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감사성향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3(4), 413-424.
- 정진, 백혜리 (2001). 조선 후기 풍속화를 통해 본 아동인식. 아동학회지, 22(1), 109-124.
- 한지영, 김정민, 김재정 (2012). 아동과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와 도움행동 간의 관계에서 감사의 매개적 역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6), 69-84.
- 현정환 (2007). 한국의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된 최근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보육학회지, 7(1), 95-110.
- Adler, M. G., & Fagley, N. S. (2005). Appreciation: Individual differences in finding value and meaning as a unique predictor of subjective well being. *Journal of Personality*, 73(1), 79-114.
- Becker, J. A., & Smenner, P. C. (1986). The spontaneous use of thank you by preschoolers as a function of sex, socioeconomic status, and listener status. *Language in Society*, 15(4), 537-545.
- Boyum, L. A., & Parke, R. D. (1995). The role of family emotional expressiveness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3), 593-608.
- Brody, L. R. (1997). Gender and emotion: Beyond stereotypes. *Journal of Social Issues*, 53(2), 369-393.
- Buck, R. (2004). The gratitude of exchange and the gratitude of caring: A developmental-interactionist perspective of moral emotion. In R. A. Emmons & M. E. McCullough (Eds.), *The psychology of gratitude* (pp. 100-12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ollins, W. A., & Russell, G. (1991). Mother-child and father-child relationships in middle

- childhood and adolescence: A developmental analysis. *Developmental Review*, 11(2), 99-136.
- Deater-Deckard, K., & Dodge, K. A. (1997).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nd discipline revisited: Nonlinear effects and variation by culture, context, and gender. *Psychological Inquiry*, 8(3), 161-175.
- Emmons, R. A., & Shelton, C. M. (2002). Gratitude and the science of positive psychology.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459-47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redrickson, B. L. (2004). Gratitude, like other positive emotions, broadens and builds. In R. A. Emmons & M. E. McCullough (Eds.), *The psychology of gratitude* (pp. 145-166).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roh, J. J., & Bono, G. (2008). The gratitude of youth. In S. J. Lopez (Ed.), *Positive psychology: Exploring the best in people, Vol. 2: Capitalizing on emotional experiences* (pp. 55-78). New York: Praeger.
- Froh, J. J., Miller, D. N., & Snyder, S. F. (2007). Gratitud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Development, assessment, and school-based intervention. *School Psychology Forum*, 2(1), 1-13.
- Froh, J. J., Yurkewicz, C., & Kashdan, T. B. (2009). Gratitud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early adolescence: Examining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Adolescence*, 32(3), 633-650.
- Gleason, J. B., & Weintraub, S. (1976). The acquisition of routines in child language. *Language in Society*, 5(2), 129-136.
- Gordon, A. K., Musher-Eizenman, D. R., Holub, S. C., & Dalrymple, J. (2004). What are children thankful for? An archival analysis of gratitude before and after the attacks of September 11.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5(5), 541-553.
- Graham, S. (1988). Children's developing understanding of the motivational role of affect: An attributional analysis. *Cognitive Development*, 3(1), 71-88.
- Greif, E. B., & Gleason, J. B. (1980). Hi, thanks, and goodbye: More routine information. *Language in Society*, 9(2), 159-166.
- Hoy, B. D., Suldo, S. M., & Mendez, L. R. (2013). Link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s levels of gratitude, life satisfaction, and hop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4(4), 1343-1361.
- Kashdan, T. B., Mishra, A., Breen, W. E., & Froh, J. J. (2009). Gender differences in gratitude: Examining appraisals, narratives, the willingness to express emotions, and changes in psychological needs. *Journal of Personality*, 77(3), 691-730.
- Klein, M. (2002). Envy and gratitude. In M. Klein (Ed.), *Envy and gratitude, and other works, 1946-1963* (pp. 176-235). New York: Free Press.
- Lazarus, R. S., & Lazarus, B. N. (1994). *Passion and reason: Making sense of our emo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evant, R. F., & Kopecky, G. (1995). *Masculinity*,

- reconstructed*. New York: Dutton
- Li, S. (2015). Chinese parents' role modeling: Promoting gratitude. *Childhood Education*, 91(3), 190-197.
- Maccoby, E. E. (1990). Gender and relationships: A developmental account. *American Psychologist*, 45(4), 513-520.
- McAdams, D. P., & Bauer, J. J. (2004). Gratitude in modern life: Its manifestations and development. In R. A. Emmons & M. E. McCullough (Eds.), *The psychology of gratitude* (pp. 81-9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cAdams, D. P., & Constantian, C. A. (1983). Intimacy and affiliation motives in daily living: An experience sampling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4), 851-861.
- McCullough, M. E., Emmons, R. A., & Tsang, J. A. (2002). The grateful disposition: A conceptual and empirical topograp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1), 112-127.
- McCullough, M. E., Kilpatrick, S. D., Emmons, R. A., & Larson, D. B. (2001). Is gratitude a moral affect?. *Psychological Bulletin*, 127(2), 249-266.
- Papalia, D. E., Olds, S. W., & Feldman, R. D. (2001). *Human development* (8th ed.). New York: McGraw-Hill.
- Reis, H. T. (1986). Gender effects in social participation: Intimacy, loneliness, and the conduct of social interaction. In R. Gilmore, & S. Duck (Eds.), *The emerging field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pp. 91-105). Hillsdale, NJ: Erlbaum.
- Russell, A., & Saebel, J. (1997). Mother - son, mother - daughter, father - son, and father - daughter: Are they distinct relationships?. *Developmental Review*, 17(2), 111-147.
- Seplovitz, S. (2011). *Relations among a triad of maternal parenting practices and adolescent gratitude* (Doctoral dissertation). Retrived March 8, 2015, from <http://gradworks.umi.com/34/90/3490432.html>.
- Shelton, C. M. (2004). Gratitude: Considerations from a moral perspective. In R. A. Emmons & M. E. McCullough (Eds.), *The psychology of gratitude* (pp. 259-28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olomon, R. C. (1995). The cross-cultural comparison of emotion. In J. Marks, & R. T. Ames (Eds.), *Emotions in Asian thought* (pp. 253-294).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Toussaint, L., & Friedman, P. (2009). Forgiveness, gratitude, and well-being: The mediating role of affect and belief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0(6), 635-654.
- Watkins, P. C., Grimm, D. L. & Hailu, L. (1998). *Counting your blessings: Grateful individuals recall more positive memory*. Paper presented at the 11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Society, Denver, CO. Retrived February 10, 2015, from http://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25139839_Counting_your_blessings_Positive_memories_

- among_grateful_persons.
- Watkins, P. C., Woodward, K., Stone, T., & Kolts, R. L. (2003). Gratitude and happiness: Development of a measure of gratitude, and relationships with subjective well-being.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1(5), 431-451.
- Whittle, S., Yücel, M., Yap, M. B., & Allen, N. B. (2011). Sex differences in the neural correlates of emotion: Evidence from neuroimaging. *Biological Psychology*, 87(3), 319-333.
- Winstead, B. A. (1986). Sex difference in same-sex friendships. In V. J. Derlega, & B. A. Winstead (Eds.), *Friendship and social interaction* (pp. 81-99). New York: Springer-Verlag.
- 1 차원고접수 : 2016. 10. 10.
수정원고접수 : 2016. 11. 14.
최종게재결정 : 2016. 12. 02.

Effects of Parents' Dispositional Gratitude on Adolescents' Dispositional Gratitude: A Comparison of Boys and Girls

Kim, Joo Hyun

Dept. of Human Ecology,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Lim, JungHa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level of dispositional gratitude of families with adolescent children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arents' dispositional gratitude on adolescents' dispositional gratitude. Self-reported data on dispositional gratitude were obtained from 353 adolescents and their biological parent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paired *t*-tests, Pearson's correlation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level of gratitude of mothers was higher than that of fathers. In addi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evel of gratitude between fathers and daughters, as well as between mothers and sons. Second, the gratitude of both fathers and mothers were related to the gratitude of their adolescent children. In particular, the dispositional gratitude of fathers was the most meaningful factor in explaining the level of gratitude in adolescent boys while that of mothers was the most meaningful factor in explaining its level in adolescent girls. These results suggest that parents' dispositional gratitude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dispositional gratitude in adolescent children. The importance of a parent of the same sex as the child was discussed to the promote the level of dispositional gratitude for adolescents.

Keywords: dispositional gratitude, adolescent, parents, gender